

大學의 開放化와 社會적 역할

우리나라의 대학은 짧은 역사에 비해 長足の 발전을 이룩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겪어야 했던 시련 또한 큰 것이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대학이 치르고 있는 진통은 大學人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을 실망케 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보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더욱 극심해진 國際 競爭은 대학인들의 결연한 의지없이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대학이 안고 있는 非生産的인 요소를 시급히 청산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대학은 이제 진리 탐구와 인재 교육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社會的 機能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에서부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거나 그 便益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나 학문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 시설·물리적인 차원, 그리고 인적 차원에서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사회에 開放되어야 할 것이다.

研究나 學問的인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유기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시설이나 인력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이 구비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대학이 개방을 원한다 해도 산업체에서 외면한다면 이 또한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부와 대학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여러 개의 産業 및 技術制 大學을 지역별로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는 그간에 대부분의 대학이 효율적으로 산학 연계 활동을 유지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은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可用한 모든 연구 시설과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産業體의 문제를 차원높게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文化的인 차원에서도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開放하려는 대학인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 시설이나 만남의 場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대학은 비교적 풍부하고 훌륭한 시설과 장소를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학생회관과 같은 시설이 학기중 주간에만 활용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처럼 대학의 휴면기에는 연중 그 시설들을 활기 넘치는 文化空間으로 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이 본연의 역할인 연구나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난제가 많긴 하지



全北大 總長 金 手 坤

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청년문화의 산실과 요람으로만 안주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 제는 지역사회의 성숙한 문화의 전당으로서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적인 차원 외에 대학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또하나의 방안은 각종 대학 시설, 즉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각종 체육 시설 등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편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국민이 이 모든 시설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청은 더이상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에 가로놓인 높은 담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이던 누구든지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실비를 부담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자의 案内와 諮問을 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대학은 고등교육 기능의 확대·개방으로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봉사 기능은 그간 지역사회로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실제로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부 대학에서 開放教育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 여건의 변화와 국민들이 대학에 거는 기대에 비한다면, 아직도 엄격하게 적용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일부 집단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학에 의한 학사 학위취득 제도나 통신교육 등과 같은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희망하는 국민 모두에게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문호를 과감하게 확대·개방하는 문제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主人이 교직원이나 학생이라는 편협된 사고의 域 안에서만 안주하던 대학 역할의 시대는 지나갔다. 특히 사립대학과는 달리 국립대학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대학 동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모두 대학 구성원이라는 開放的인 思考의 전환이 결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納稅者인 국민의 필요나 요구가 있을 때는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체없이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주인인 국민에게 奉仕하는 것이 대학이 가진 또하나의 중요한 의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開放化는 새로운 질서로 체면되는 知的 競争의 국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예비하는 연구와 현실을 이끌어 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 대학인들이 앞장서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결실한 또하나의 과제인 것이다. ▣